

■전남지역 초·중·고 통학버스 운행거리 현황

(자료:황병철 국회의원실)

30~39km	40~49km	50~59km	60~69km	80km 이상
64개교(76개 노선)	27개교(29개 노선)	7개교(9개 노선)	9개교(11개 노선)	1개교(1개 노선)



왕복 85km...초등생 등하교만 2시간 '녹초'

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전남 통학거리 더 멀어져

교통사고 위험·학생 건강권 침해...농산어촌 황폐화도

전남지역에 초등학생이 학교를 오가는데만 통학버스로 2시간 걸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린 초등학생이 매일 2시간씩 등·하교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학생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높다.

22일 전남도교육청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제출한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농산어촌 학교 311개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교를 오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통학거리 30km 이상인 학교가 93개교 123개 노선에 달했다.

80km 이상인 학교가 1개교(1개 노선), 60~69km 9개교(11개 노선), 50~59km 7개교(9개 노선), 40~49km 27개교(29개 노선),

30~39km 64개교(76개 노선) 등이었다.

특히, 순천 외서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운행거리가 84.8km에 달했다. 등교거리가 45km, 하교거리 39km로 학교가 있는 외서면 월암리에서 순천시내까지 운행하고 있다. 이 거리를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해도 최소 45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산간 지역의 도로 사정과 통학버스의 접근을 감안하면 1시간가량 걸린다.

인근 상사초등학교는 등·하교 통합거리가 66km, 주암초는 64.4km였다. 진도 지산초와 석교초는 66km와 61km, 해남 화남초 64km, 함평 학다리중앙초 60km 등이다. 주암초는 어왕분교(2009년)와 화원초는 화원북분교(2011년)와 통폐합되면서 통학거리가 멀어졌다. 이들 학교는 등·하교 통학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초등학생이 매일 1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하는 위험과 체력소모에 따른 건강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높다.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동안 전남지역 초·중·고교 163개교가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7개교로 가장 많았고, 진도 15개교, 해남 14개교, 고흥·완도가 각각 13개교, 영광 12개교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백수남초와 화계분교가 점암초로 통합됐고, 백수동분교는 백수초로, 영농분교는 도포초로, 성요셉여고는 강진고로, 나산고는 함평여고와 합쳐져 학교 이름이 지워졌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농산어촌 황

폐화를 부채질하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교육부의 권고 기준은 읍·면, 도시·벽지 등 농·산·어촌 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였지만 올해부터 면·도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적용 기준이 바뀌었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는 416곳(초·중·고)으로 확대된다. 전남 전체 898개교(초 493·중 260·고 145) 가운데 46.3%에 달한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전남지역 학교 2개교 중 1개교는 사라지게 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교육은 학생수나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뭄 '관심 단계'...전남도 대책 분주

강수량 평년의 75%...용수 공급 점점 등 선제대응

전남도가 연일 계속되는 짙동더위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가뭄 위기상황을 '관심 단계'로 설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전남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모두 333mm로 평년 강수량 444mm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수율은 52%로, 평년 저수율 67%에 못 미치는 가운데 전남도는 이날 가뭄 위기관리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로 규정했다.

가뭄 위기관리는 관심(최근 2개월 새 강수량이 평년대비 80% 미만)과 저수율이 평년의 71~80%·주의(평년대비 70% 미만)와 경고(최근 2개월 새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로 나뉜다.

전남도는 이날 가뭄 피해대비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23일부터 각 시·군별로 가뭄 피해상황을 운영, 생활·농업·공업용수에 대한 공급대책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노후 상수관로를 보수하고 일부 산간지역과 섬 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비상 운반급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강수량 및 저수율·기상에 보 등을 통해 가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저수지·양수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가뭄 위기관리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또는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지역·시간대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사전 점검을 완료한 관정 4658공과 양수기 5145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양수급수를 할 계획이다.

도태용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가뭄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가뭄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 단계별·지역별 가뭄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보상 등 사후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택기자 glee@kwangju.co.kr

OB맥주공장 정문 화물차로 가로막은 노조원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2일 맥주공장 정문에 대형 화물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노조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OB맥주 공장 공장 정문을 본인 소유의 25t 트럭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OB맥주가 물류운송 체계 직속화를 이유로 대형 화물차량을 사

용하지 않고 5t 트럭만 이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 다른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주류운송 효율화를 위해 25t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한 지 2년 만에 5t 트럭 직속화를 추진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직속화 방침 철회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다른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추석 앞두고 3주동안 원산지 미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조기, 명태, 방어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군, 유관기관 등도 참여하며,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7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마트, 시장, 음식점 등 100여 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8건, 거짓표시 1건을 적발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초등학교 개학...누가 누가 더 컸나

22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광주 북구 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등을 맞댄 채 키를 재고 있다. 전남에서만 이날 137개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이번 주 개학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잇단 패러글라이딩 사고...안전대책 마련 시급

동호인구·활강장 급증 속

국토부 실태 파악도 못해

올해 전남에서 패러글라이더 추락으로 2명이 숨지는 등 해마다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패러글라이딩이 신종 레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동호인과 활강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실태 파악이나 안전지침 마련에 손

을 놓고 있다.

22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여수 만덕동 마래산(해발 386m) 정상에서 회원들과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54)씨와 B(56)씨의 패러글라이더가 얽혀 산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이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비행 중 주변을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장암산(해발 430m)에서 C(40)씨의 패러글라이더 비행 중 갑자기 추락해 숨졌다. C씨는 난기류에 휘말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완주군에서 열린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나무나 송전철타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중상 이상의 사상자를 낸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모두 26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활강장의 증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확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구와 활강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패러글라이딩협회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비행수칙을 지키고, 기상 여건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술 취해 '경찰서 폭파' 시비 걸며 의경 폭행...결국 '경찰서행'



○...술에 취해 경찰서 입구에서 '경찰서를 폭파하겠다'고 시비를 걸며 경비를 서고 있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장모(41)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광주북부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을 막았다며 행패를 부리다 이

를 제지하는 의무경찰들을 군화를 신은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

○...지난해에도 형의 출소행방을 협의로 1년을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장씨는 "경찰서로 2000cc 이상의 차량이 들어오면 경찰서를 폭파해 버리겠다"며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경찰은 "장씨가 고급차량을 타는 사람들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4400	1	북구 용봉동 1355-1 현대아파트 301동 10층 1008호 134.79㎡	아파트	334,000,000 334,000,000	
2016타경 5953	1	광산구 수완동 1077 4층 405호 92㎡	아파트	176,900,000 176,900,000	
2016타경 7157	1	광산구 목련동 382번길114, 204동 10층 1010호 [신가동, 중흥아파트] 59.955㎡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6타경 7577	1	서구 월드컵4로226번길5, 201동 11층 1102호 [내방동, 해터아파트] 59.88㎡ [현황조서당시 [2016.5.15]미납관리비102,580원외음]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일부도시계획시설 [도로]에지속
2016타경 7812	1	서구 풍암동54, 106동 3층 302호 [풍암지구신안마을새한센시빌아파트] 82.6212㎡	아파트	225,000,000 225,000,000	
2016타경 61762	1	광산구 신창동 1111 신창5차호반베리디움 502동 17층 1702호 84.9760㎡	아파트	272,000,000 27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 15977	1	광산구 송도284번길39 1층68.37㎡ 2층53.19㎡ 부속 변소0.81㎡ 채시의 창고57.3㎡	단독주택	80,785,820 80,785,82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모함 [채시의 건물인창고3동중 단인소유토지중청번한창고2동외음], 명지
2016타경 6390	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009-2 430.4㎡ 채시의 다용도실 30.6㎡	대	168,138,700 168,138,700	일괄매각, 채시외 건물모함

2. 매각기일 : 2016. 9. 7.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9. 21.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법원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유지사항에 대한 비밀,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회 등을 기밀하고 입찰에 응한 자의 이름을 입찰장에 기재하지 않는다. 입찰신청의 양식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군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으로 입찰하거나 지급보증유치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매수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별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선고인과 차순위매수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담권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과 공과나 말변에 비추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당권, 기입부등은 승낙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권이나 기입부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등권료납부를 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연금청구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도를 받는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차당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권등본확인서를 받고 그 후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등권은 법원에 신청하여 인도를 받는다.
 ② 입찰신청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포함하여나 신변보호도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유는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를 받는다.
 ③ 소유권이전 등기 및 지등권이나 기입부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등권료납부를 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연금청구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도를 받는다.
 ④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⑤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⑥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⑦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⑧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⑨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⑩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명상부수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선고인으로 본다.

2016. 8. 2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